

## 《金瓶梅》 속 人身賣買를 통해 본 明代 社會現象

강 태 권\*

< 목 차 >

1. 序言
2. 本論
  - (1) 일반적 경제 배경
  - (2) 작품 속의 경제 배경
  - (3) 인신매매
    - 1) 人身賣買의 原因
    - 2) 인신매매의 가격
    - 3) 인신매매된 사람의 처지
    - 4) 인신매매된 사람들의 자기 운명에 대한 태도
3. 結論

### 1. 序言

《금병매》가 비록 《수호전》 중에 등장하는 서문경과 반금련의 이야기를敷衍하고 있으나, 그 시대적 배경은 北宋 末年의 歷史를 가지고 明代 社會生活를 묘사하였고, 또한 작자가 엄격한 寫實態度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 책은 “명대 社會의 歷史記錄”으로 이루었다. 때문에 張竹坡는: “《금병매》는 한 부의 <史記>이다.(《金瓶梅》是一部<史記>.”<sup>1)</sup>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다. 《금병매》는 명말 社會의 정치, 경제, 문화, 사상 및 풍속, 인정 등 각 方面의 중요한

참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나 작자가 社會 현실 묘사에 있어서의 세밀하면서도 광범위한 태도는 종전의 그 어떠한 短, 中, 長篇소설보다도 뛰어났다.

확실히 이 작품은 晚明 社會의 다양한 면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나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되고 있는 晚明 상업의 발달한 도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명대에서 서서히 일기 시작한 資本主義 萌芽期 중국 社會의 政治·經濟·倫理·道德·人情·風俗·文化·日用 등등 진실된 情狀을 보여 주기에 가히 중국의 “中國 16세기 百科全書”라 하겠다. 이에 정진탁은 “진실된 중국의 형형색색한 社會를 표현하는 것으로는 아마도 《금병매》보다 더욱 중요한 소설은 없을 것이다.(表現眞實的中國社會的形形色色者, 《金瓶梅》恐怕做不到更重要的一部小說了.)<sup>2)</sup>”라고까지 말을 한다. 때문에 혹자는 이 작품을 개괄적으로 “中國 16세기 後期社會 風俗史”<sup>3)</sup>라고까지 말을 한다.

본 연구 논문에서는 당시의 社會 풍속 가운데에서도 人身賣買의 문제는 그 이전의 어떠한 작품보다 많이 다루고 있기에 이를 통해 당시 封建社會가 안고 있는 腐敗와 人權蹂躪, 특히나 그 중심에 있는 여인들과 하류 계층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本論

#### (1) 一般的 經濟背景

서기 1368년 朱元璋이 즉위를 하면서 明朝는 시작된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농업은 가뭄 갈수록 疲沓하게 되니 《明太祖實錄》에서 말하는 바의 “耕桑之地, 變爲草莽”의 지역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며, 특히나 북방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張竹坡, 第一奇書《金瓶梅》讀法, <金瓶梅資料彙編> 侯忠義, p.33. 北京大出版部.

2) 鄭振鐸, 《論金瓶梅詞話》, p.238.

3) 李時人, 《金瓶梅新論》, p.6, 學林出版社.

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 발전을 회복시키는 것이 주원장의 가장 긴박하면서도 중요한 임무였다. 이에 황량해진 땅으로 백성을 이주시켜 땅을 개간하게 하고 수리사업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세금을 감면하고 工商을 힘써 장려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빠르게 농업, 수공업과 상업 등이 회복되고 크게 발전을 하기에 이른다. 백여 년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명대 중기 弘治(孝宗), 正德(武宗)에 이르러 상당한 繁榮의 국면을 맞게 된다.

명대의 이 시기에는 비록 봉건적인 小農 위주의 자연 경제가 중심이었지만 이때부터 사회경제의 어떤 영역에서는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특히나 嘉靖, 萬曆 시기에 이르러 중국 자본주의와 생산 관계의 초기 단계적인 모습이 마침내 출현하게 된다.

이 시기에 농촌의 토지 兼並은 매우 심하게 이루어졌다. 위로는 황제에서부터 아래로는 신홍 부호들까지 특권을 등에 업고 대량의 토지 겸병에 나섰다. 이러한 대량 겸병의 결과로 도시의 상업과 공업의 발달에 대량의 노동력을 제공해 주었다. 이 시기의 工商業은 상당히 번영을 하여서 紡織業, 鑛產業, 陶瓷器業 등이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製鹽, 造船, 釀造 등 원래 있었던 업종도 신속하면서도 대규모적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중전에는 그다지 발전치 않았던 종이제조업, 印刷 등의 생산 규모도 끊임없이 확대되었다.

이 시기의 상품경제는 일찍이 나타나지 않았던 몇 가지의 특징이 보여진다. 첫째로, 明代 중기 흥치, 정덕 이후에 허다한 상품의 교역이 중전의 국지적이면서도 분산적이고 폐쇄적이던 소시장적인 것에서 운수가 발달함과 더불어 비교적 먼 곳까지도 진출하는 상거래와 이루어지면서 각 地區 간의 교역 관계도 더욱 강화되었으며 시장의 부단한 확대에 의해 상인들의 행적도 전국 각지로 넓어졌다. 변화한 도시에서 인구가 적은 변방까지, 교통이 편리한 내륙에서 걷기조차 힘든 바닷길까지 거의 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

둘째로 사회 분업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심화되었다. 또한 생산도구와 생산기술도 새롭게 발전되고 제고되었으며 각 지역 간의 전부분적인 분업도 이

루어졌으니 이 점이 바로 명대 상업 발전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비단의 생산과 교역에 있어 전국적으로 비단실을 생산하는 지방은 상당히 많았지만 생산량이 많고 품질이 가장 좋은 것은 浙江湖州府의 湖絲와 四川保寧府의 閬絲가 추천되었다. 기타로 蘇州, 杭州, 嘉定, 湖州的 비단; 松江, 上海의 목화(棉) 시장; 경덕진의 도자기; 福建泉州; 漳州의 설탕; 福建順昌의 竹紙; 安徽 霍山 지역의 茶; 无錫의 철과 철기; 강서 樟樹鎮의 藥材; 복건 海澄의 후추; 사천, 운남, 귀주 등의 木材 등이었다. 이러한 지방은 비단 생산의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또한 상품 유통의 집산지이기도 하였다. 또한 폐기하여 버려졌던 대운하가 새롭게 수리되면서 운하 연안의 작은 마을들도 급속히 발전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상업교역의 큰 도시로 발전되면서 상업 무역도 더욱더 번영되었다. 예를 들어《금병매》작품 중에 등장하는 臨淸은 명초에는 보고들을 것도 없는 작은 縣으로 編戶(주민등록대장에 등록을 끝낸 民家)가 6권에 불과하였으나 상업 인구의 점차적인 증가에 따라 36권으로 늘어났으며 만력연간에 이르러 인구도 거의 3만여 가호에 이르러 명 말의 “一城之中, 無論南北貨材, 卽紳士商民近百萬口.”<sup>4)</sup>를 실감케 하였다. 또 <明神宗實錄>의 기재에 의하면 만력연간에 이곳에는 포목점이 73곳, 비단가게가 32곳, 잡화점이 65곳 등 상업 무역이 지극히 번영하였으며 각종 물건들 예를 들어 목화나 목화 제품, 모피 제품, 찰기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또한 쌀 시장·말 시장·닭 시장·살림 가구 시장 등이 각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으며 임청도 이미 전국 33군데 큰 상업 거래 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sup>5)</sup> 때문에 그 지방에서 나는 물건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나는 물건들이 대량으로 이곳에 유입되어서 이곳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항상 많은 수의 여행객들이 이곳을 지나가곤 하였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부분에서 그때 이미 자본주의 성질의 생산 관계, 즉 일꾼들을 고용하여 생산에 종사케 하는 현상이 출현한다는 것이다.

4) <明清史料. 甲編> 第 10冊.

5) 霍現俊 <金瓶梅新解>, p.43.

특히 동남연안해의 방직업에 상당한 규모로 형성되어지고 있다. <明神宗實錄> 卷 350에 기재되기를

오지방 사람들이 제일 어려웠고 일감도 적어지니, 집안에서 베를 짤 때 돈있는 사람들은 돈을 일반인들은 노동력을 내어 서로 도우며 살았다.(吳民生齒最煩,恒產絕少,家杼軸而戶纂組,机戶出資,机工出力,相依爲命久矣.)

또 <明神宗實錄> 卷 361에 蘇州에는

염색공장이 문을 닫자 염색공들도 흩어진 사람들이 수천명이 되고, 돈있는 사람들이 랜두자 직공들도 흩어진 사람이 수천이 달했으나, 모두가 스스로들 일해서 먹고 사는 양민들었다.(染房罷而染工散者數千人,機戶罷而,織工散者又數千人,此皆自食其力之者良民也.)

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로 상품경제의 발달과 생산력의 향상은 대규모의 고용 노동을 필요로 했다. 견직업 중심의 蘇州에서는 “작업장에서는 자금을 대고, 노동자는 힘을 대는(機戶出資, 機工出力)”<sup>6)</sup> 경제 관계가 나타났고, 동시에 작업장 고용주의 실력 및 영향도 빠르게 성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바의 “機戶”와 “自食其力之者”가 실제로는 고용된 노동자들로서 그들과 “機戶”는 고용자와 피 고용자의 관계로 중국 상품 경제 발전 중의 참신한 要素인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것은 변화의 한 과정으로 상당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명 초기의 武宗(正德皇帝)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여서 명 말의 萬曆(神宗皇帝)에 이르러 비교적 보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금병매》가 쓰여진 시기와 반영된 사회 현실이 바로 이것과 부합된 것으로 작품 속에서 형상화시키고 또 세밀한 필치로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여실하게 그려 내고 있다. 때문에 그 당시의 경제 상황과 사회 각 계층의 생활을 우리들은 《금병매》라는 작품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6) 《神宗實錄》 卷361.

## (2) 作品 속의 經濟背景

실제 작자가 살았던 시기는 명대의 萬曆연간이라고 추정이 되지만, 작품속의 시대적 배경은 北宋 徽宗 政和2년(1112년)에서 南宋 高宗 建炎 元年(1127년)이기에 때로는 시대적인 차이가 분명치 않게 묘사되어진 곳이 있기에 작품 속에 나타난 명대의 경제 제도를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히 살펴보고자 한다.

### 1) 經濟制度

明 太祖는 천하를 통일한 후에 이십여 년간의 시간을 들여 대규모 土地測量 및 人口調査를 했다. 전국의 토지를 책으로 분류하여 “魚鱗圖冊”이라 하여 토지세 徵收 근거로 삼고<sup>7)</sup>, 또 인구 조사한 것은 “黃冊”이라 하여 賦役의 근거로 삼았다<sup>8)</sup>. 이러한 ‘兩稅法’이 嘉靖, 萬曆年間에는 所謂 “一條鞭法”으로 바뀌어 실행되었다<sup>9)</sup>. 이 법을 시행함으로써 많은 토지세를 징수할 수 있었으나 ‘모든 토지를 은전으로 징수(皆畝徵銀)’하였기에 간접적으로 ‘白銀’의 수요를 촉진시켰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토지는 官田이라는 名目하에 국가에서 소유하게 되어 황제 및 그 측근들이 토지를 兼併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大地主가 되었다<sup>10)</sup>. 이러한 일반적인 租稅 이외에도 明代에는 ‘鹽稅’가 있었다. 소금(鹽)은 사람이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품인 것이다. 그것이 교환의 수단이 되고 또한

7) 《明史》 <食貨志> 卷2: “洪武20年 命國子生武淳等分行州縣, 隨糧定區, 區設糧長四人, 量度田畝方圓, 次以字號, 悉書主名及田之丈尺, 編類爲冊, 狀如魚鱗號曰魚鱗圖冊.”

8) 上同書 卷2: “賦役之法, 唐租庸調優爲近古, 自楊炎作兩稅法, 簡而易行, 歷代相沿, 至明不改… (太祖) 卽位之初, 定賦役法, 一以黃冊爲準, 冊有丁有田, 丁有役, 田有租…”

9) 上同書 卷二: “一條鞭法者, 總括一州縣之賦役, 量地計丁, 丁糧畢輸於關, 一歲之役, 官爲僉募, 力差, 則計其工食之費, 量爲增減: 銀差, 則計其交納之費, 加以增耗, 凡額辦, 派辦, 京庫歲需與存留, 供億諸費, 以及土貢方物, 悉併爲一條, 皆計畝徵銀, 折辦於官, 故謂之一條鞭, 立法頗爲簡便.”

10) 陳登元 《中國土地制度》 p.261 <三百年大地主之創造>라는 문장 중에서 大地主의 등장 원인을 1) 奏乞 2) 投獻 3) 賜地로 보고 있다.

국가에서 獨占사업으로 管掌함에 따라 明初의 鹽制인 “開中法”이 곡물을 바치고 대신 소금을 바꿀 수 있는 물표를 주어 보관케 하던 본래의 趣旨를 잃게 되었다<sup>11)</sup>. 이 염제는 관리의 부정부패가 개입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明代 경제 정책 중에서 실패한 것의 하나라 하겠다. 《金瓶梅》속에서도 채대사가 直諫하는 형식을 빌려 그 폐단을 논하고 있다.<sup>12)</sup> 그러나 ‘소금판매허가증(鹽引)’을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이익을 보장해 주기에 사람들은 다투어 권세가에 붙어 이를 先占하려고 하였다. 작품 속에서 西門慶도 채어사에게 뇌물을 써서 實物인 소금을 다른 사람보다 일 개월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한다(제 49회). 소금 300斤을 一引으로 계산하는데 三萬引 즉 900萬斤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팔았을 때의 利潤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작품 중에 청렴한 관리로 등장하는 曾孝序는 즉시 上奏하여

“천하의 재물은 유통을 귀히 여깁니다. 백성의 고혈을 취하여 京師에 모아들이는 것은 아마도 태평의 정치는 아닐 것입니다. 민간의 ‘결조표적법’은 실행해선 아니 되며, 當十의 큰 돈은 사용해선 안 되며, 소금에 대한 법령을 자주 변경하면 안 됩니다.

(天下之材, 貴于通流. 取民膏以聚京師, 恐非太平之治. 民間結糶俵糶之法不可行, 當十太錢不可用, 鹽鈔法不可屢更...) - 제 49회 -

라고 諫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법들은 모두 아래가 손해를 보고 위에서 이익을 보는 바 그 弊端이 이미 “신이 듣건대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하니 누구와 함께 나라를 지키겠습니까?(臣聞民力彈矣, 誰與誰防?)-제 49회-”의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 주고 있다.

## 2) 白銀의 사용과 가치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진보의 결과로 白銀이 점차 각 지방 유통의 주요 화폐

가 되었으며 또한 購買力도 갈수록 높아 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明代에 이르러 상업이 발전하게 되고 통화 팽창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과 공급 부족 및 가치가 낮고 불안정한 동전은 모두 각 지방 시장 유통에 있어 尙大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때문에 白銀이 보편적으로 유통하게 되었다. 시장 교역뿐만 아니라 이러한 화폐경제 발전의 大潮流에 대하여 정부 또한 현물 징수에서 “折銀”이라 하여 현물 대신 白銀으로 징수함으로써 白銀 수요의 증대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었다<sup>13)</sup>. 즉 正統 元年(1436년)부터 정부는 長江以南의 대부분 運輸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토지세로 징수하던 쌀이나 보리 대신에 은으로, 한石을 銀 二錢五分의 비율로 징수하여 그것을 ‘金花銀’이라 하였으며 이러한 課徵 방법은 嘉靖年間に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것을 ‘一條鞭法’이라 하였다. 또한 鹽法에 있어서도 곡물 대신에 白銀을 받고 ‘鹽引’을 발급하여 주었다. 이처럼 白銀의 수요는 갈수록 많아졌지만 중국 내의 생산 및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은 그다지 증가하지를 않았으므로 금과 은의 가치가 서로 비슷하게 접근되기까지 하였다<sup>14)</sup>. 《金瓶梅》작품 안에서도 白銀이 모든 거래에 사용되고 있기에 당시 경제생활에 있어 중요한 몇 가지의 물가를 짐작하여 볼 수 있다.

### (a) 쌀 값

제 58회에서 應伯爵이 네 명의 歌女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여기 四錢 銀子면 가마 값은 물론이고 紅綾兒도 사고 쌀도 一石7, 8斗는 살 수 있어 너희 집 기생 어미와 집안의 대소인이 능히 한 달은 먹고살 수 있을 것이다.(…連轎子錢, 就是四錢銀子, 買紅綾兒來, 買一石78斗. 够你家鴿子, 和你一家大小, 吃一個月.)”이라고 한다. 물론 이것이 정확한 쌀값은 아닐지라도 그 당시 가격을 다른 것과 비교하여 볼 수가 있다.

11) 《明史》<食貨志> 卷4: “有明鹽法, 莫善於開中, …勾結鹽戶, 私製私販, 私鹽盛行, 積引益多.”

12) 제 48회, ‘三曰更鹽鈔法, 切惟鹽鈔乃國家之課, 以供邊備者也!’

13) 全漢昇, 《中國經濟史研究》 p.209, 新亞研究所出版, 1983.

14) 上同書, pp.181-184.

(b) 옷 값

제 56회에서 常時節이 西門慶에게 돈을 얻어 옷을 사기 위해 거리에 나가니

몇 군대를 둘러보아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 청색 항주견 여자 저고리, 연두색 비단치마, 물빛 남경주 홀저고리, 홍색 저고리, 백주 치마 등 다섯 가지와 자기가 쓸 것으로 주황색 저고리 등을 사고... 모두 육 냥 오 진을 사용하였다.

(看了幾家都不中意,只買了一領青抗絹女襖,一條綠襖裙子,月白雲襖衫兒紅綾襖子兒,白綢子裙兒,共五件,自家也對身,買了件兒綾襖者...共用去六兩錢銀子.)

다섯 점의 여성 의복과 하나의 남자 옷을 사는 데 六兩五錢의 은자를 지급한 것은 다른 물가와 비교했을 때 옷값이 비교적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재단 비용도 “삼십여 벌의 의복을 재단하는 데 다섯 냥의 은자를 지불했다.(須與共裁錢30件衣服兌了五兩銀子.)-제 40회-” 한 벌당 一錢六分으로 비단 옷값만 비싼 것이 아니라 재단비도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 집 값

제 36회에서 西門慶은 韓道國의 아내인 王六兒와 밀애를 하기 위해 그녀에게 백이십 냥이 나가는 당시에 있어 중간 정도의 집을 사 준다. 또한 제 33회에서 陳經濟가 喬大戶라는 벼슬아치가 천이백 냥을 들여 집을 샀다고 이야기하면서 西門慶의 집과 비슷하다(與自家房子差不多了)고 말을 한 것이나, 제 70회에서 하제 형이 京師로 가면서 그의 집을 西門慶이 중간에 나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 줄 것을 부탁하며 본래는 천삼백 냥에 샀던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에서 천이백 냥 前後면 당시에 있어 호화 주택임을 알 수 있다.

(3) 人身賣買

1) 人身賣買의 原因

작품 중에서 묘사되고 있는 인신매매의 원인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급히 돈이 필요한 경우이다. 대부분 인신매매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은 극도로 빈궁하여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급히 돈이 필요한 자들이다. 작품 중 제 36회에서 풍마마가 왕륙아에게 말하기를: “남쪽 조씨 아줌마 집에 열세 살 난 애가 있는데 내가 내일 데리고 와서 보여 줄게요. 작은 집안에서 자라난 애인데 조씨의 남편은 군인이었는데, 말이 죽는 바람에 돈이 필요해 애를 팔려고 하니 은자 네 냥이면 됩니다.(南首趙嫂兒家有個十三歲的孩子,我明日領來與你看,也是一個小人家親養的孩兒來,她老子是巡捕的軍,因倒死了馬,少庄頭銀子,怕守備那里打,把孩子賣了,只要四兩銀子...)” 제 95회에서 薛嫂가 한 명의 일하는 여자애를 데리고 춘매한테 데려가 말하기를: “애 아버지가 군대에 가려고 해요(他老子要投軍使).” 그래서 딸을 팔려고 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못사는 사람들(小人家)이 가난해서 더 이상 어찌지를 못할 때는 군대에 가서 먹고 입는 것을 해결하곤 하였다. 그렇지만 그렇게 갔던 군대에서 전쟁터로 나가 죽을 줄은 알겠는가? 그러나 이렇게 더 이상 어찌지를 못하는 막다른 상황에서 자기의 친딸을 파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비참한 생활은 바로 암울한 사회 현실이 조성한 것이다. 작자는 자신은 군대에 가면서 딸은 팔 수밖에 없는 典型的인 이 같은 사건을 들어 얼마나 많은 일반 백성들이 행복스러운 가정은 파탄에 이르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생이별을 하는 처참한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집안의 여자들은 이같이 인신매매가 행하여지고 있는 거레에 있어서 “주요한 대상(貨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팔려지는 여자들이야말로 실제 생활을 해 가는 과정에 있어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는 구체적인 표현이자, 사람의 생활에 있어 더 이상 이르지

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후의 상황에서 취하는 최후의 행위인 것이다.

둘째로, 원주인이 더 이상 사용하기를 원치 않아 轉賣를 하는 경우이다. 제 24회에서 이병아와 맹옥루 등이 獅子街에 있는 집으로 놀러 갔을 때, 두 명의 나이 어린 여자 하인 애들이 온돌 위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병아의 유모가 이르기를: “하나는 북쪽에 있던 집에서 일을 하던 하인 아이로 나이는 열셋이고 단지 은자 다섯 냥에 팔려고 내놓은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왕서반<sup>15)</sup> 집안 하인의 처였는데, 그 하인이 도망을 치자 주인이 들어 올린 머리를 풀어 내리고 은자 열 냥에 내놓았죠...(一個是北邊人家屋裏使女...一個是汪序班家出來的家人媳婦, 家人去了, 主子捫 髻打了, 領出來賣.)”. 이 두 명의 여자들은 모두 그녀들의 친부모가 팔려고 내놓은 것이 아니라 본래는 일찍이 부모에 의해 부자 집에 팔려서 하인이 되었다가 후에 다시 주인에 의해 다시 팔리는 것으로 주인은 그들의 運命에 대해 이미 處置權들을 가지고 있기에 주인들이 일단 그녀들에 대해 염증을 느끼거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 그녀들을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하면 주인은 가차 없이 그녀들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넘긴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하인의 부인도 팔아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혼한 하인의 부인도 그에 대한 소유권은 주인에게 속하는 것이다.

셋째로, 나쁜 일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사람을 매매하는 경우이다. 이 같은 종류의 인신매매는 일반적인 “더 이상 사용할 생각이 없어 매매를 한다.”기보다 더욱 사정이 복잡한 것으로 매매하는 심정이 더욱 조급하고 촉박한 경우가 있다. 얼마에 매매를 해 얼마를 남기거나 하는 금전상의 이익 문제는 중요치 않고 빨리만 팔아 치우면 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팔리는 경우는 주인이 극도로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있기에 더 이상 어찌지를 못하고 총망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송혜련이 “처음에는 채통판의 집에 팔려가 방 안에서 일을 하는 하인으로 쓰이다가, 후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여 부엌일을 하는 장충의 부인으로 시집보내졌다.(當先賣在蔡通判家, 房裏使喚, 後因懷事出來, 嫁與廚役蔡

聰爲妾小).” 이 같은 “좋지 않은 일(懷了事)”은 작품 중에서는 자주 쓰이는 명사적인 것으로 거의 여자 하인들이 주인들에 의해 농락을 당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주인들이 그녀들을 농락한 후에 귀찮은 일이 발생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인이나 주인의 부인이 그녀들을 “쫓아내는(出來)” 것이다. 이같이 쫓아내는 것은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닌 당연히 “팔아 쫓아내는(賣出來)” 것이다. 작품 중에서 이 같은 사례의 대표적인 것이 반금련과 춘매가 팔리는 경우라 하겠다. 반금련과 진경제가 私通을 한다. 명목상이긴 하지만 장모와 사위 간의 이 같은 파렴치한 행위는 당시의 법률에 의하면 斬首에 처해지는 悖倫의 극치인 것으로 일반적인 윤리적인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때문에 사람들도 이 같은 私通에 대해 크게 義憤을 느끼고 또한 쉽게 흥분을 하고 절대로 용할 수 없는 행위로 여겼다. 본부인인 오월랑은 두 사람이 이 같은 천하의 몹쓸 일을 한 것을 알고 王婆를 불러 그들을 팔아 없애도록 한다. 춘매와 반금련은 서로 한통속이 되어 일을 벌였기에 둘을 같이 팔아넘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치상으로 본다면 반금련은 서문경의 다섯째 부인으로 서문경이 돈을 주고 사들인 것이 아니라 광명정대하게 맞아들인 부인으로 그렇게 팔아 치운다고 해서 바로 팔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오월랑의 면전에서 반금련은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을 빈다. 이는 정부인과 小室, 즉 妻妾이라는 분명한 신분상의 차이로 이들 둘 사이의 관계는 그야말로 天壤之差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서문경의 生前부터 오월랑에 있어 눈엣가시였던 반금련이었기에 사위인 진경제와의 사통을 빌미로 반금련에게 “음탕한 부인(淫蕩之婦)”이라는 명목으로 팔아넘기니 이것은 당시의 윤리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합당한 조치고 자기 눈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니, 오월랑의 입장에서는 반금련을 팔아 치우지 않으면 그 누구를 팔아넘기겠는가?

넷째로 사람을 禮物로 삼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경우이다. 사람이 기왕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된다는 것은, 당연히 그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일종의 財産이고, 일종의 物品이라고 여겨진다. 차연적으로 일종의 예물로 주고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말이 예물의

15) 서반(序班) : 명대의 관직으로 오십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鴻虛寺에 소속되어 있어서 백관이 朝禮를 할 때에 사무를 봄.

교환이지 실질적으로는 변형된 合法性을 띤 일종의 인신매매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서문경이 蔡京의 세력에 의지해 山東提刑所 副提刑 직위를 얻었을 때, 청하현 지현 李達天이 바로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악기 연주도 잘하는 歌童을 서문경에게 보내 주면서 직위를 얻은 데 대한 축하 선물로 삼는다.<sup>16)</sup> 또한 揚州 苗員外가 서문경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훈련을 시켰고 늘 자기의 곁에 두고 즐기던 두 명의 歌童을 서문경이 좋아하는 것 같자 불원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서문경에게 보낸다.<sup>17)</sup>(55회) 후에 서문경은 이 두 명의 가동을 채경에게 다시 선물로 보낸다.(56회) 양주의 苗靑도 또한 본래는 노비였으나 주인을 살해하고 재산을 탈취한 죄로 인해 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서문경한테 이 사건을 잘 무마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곤 멀리 도망을 간다. 사건이 원만히 처리되자 묘청은 서문경에게 감사하기 위해 열 냥의 은자를 주고 千家戶 집의 하녀인 楚雲을 사서 서문경의 첩으로 선물하려고 준비를 하였으나(제 63회), 서문경의 과도한 음욕으로 인해 일찍 죽게 되자 없던 일로 하게 된다. 사람을 예물로 삼아서 서로 주고받는 행위는 당연히 高官大爵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 혹은 好事家들 소위 그들만의 “호쾌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뽐내고 과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高雅”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상의 예에서 보았던 세 명의 歌童들은 인물이 빼어났음은 물론 노래도 잘 부르고, 악기도 잘 다루어 그들을 所有하고 있는 주인들의 취미적인 생활과 우아함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으로, 주고받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모두 한 가지 이상의 특기를 가지고 있어 주인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혹은 술을 마실 때에 곁에서 흥을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그들을 奴婢化, 動物化, 혹은 物件化하여 돌려 가며 주고받는 것으로, 증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싫든 좋든 전혀 반항치를 못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 건네지게 되는 것이

다. 제 55회에서 묘원외가 술자리에서 그가 데리고 있던 가동을 서문경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한다. 그런 후에 묘원외가 가동을 불러 짐을 꾸려 떠나라 하니, 가동들은 울면서: “저희들은 오랫동안 원외 영감을 모셔 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저희들을 갑자기 버리시는지요? ...내가 지난번 술자리에서 너희들을 주겠다고 하였다.(小的每伏待的員外多年了, 却爲何今日閃的小的們不好, ...我前日請山東西門大官, 席上把你兩個許下他.)” 이에 가동들은 “원외 나리께서 수년간 저희가 연주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느라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이셨습니까? 이제야 조금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곁에 두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 보내시려고 하십니까?(員外這幾多年了上不知費盡多少心力, 教的俺們彈唱哩, 如今才曉得些絃索, 却不留下自家歡樂, 怎地倒送與別人快話?)” 하면서 엎드려 눈물을 철철 흘렸다.

다섯째, 시집갈 때 혼수품과 함께 보내지는 경우이다. 남녀가 결혼을 할 때에 신부 측에서는 신부는 물론이고 그녀를 시중들고 있던 하인이나 노비도 함께 보내 자기 집안이 재산이 있다는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신분이 있음을 암묵적으로 표시하곤 하였다. 이렇게 자신이 시집가기 전에 데리고 있던 하인들을 혼수품과 함께 신랑 집에 감으로 해서 언어 행동에 있어 체신이 있어 보이고 신랑도 감히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 같이 혼수품과 함께 데리고 간 하인은 일종의 우월적인 신분의 상징이자 신부의 가치를 높여 주는 것으로 마치 신부가 시집을 적에 보석함이나 장롱등과 마찬가지로 여자 집안의 富貴榮華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서문경의 죽은 정부인 陳氏가 처음에 서문경에게 시집을 적에 데리고 온 하녀가 바로 孫雪娥였다. 또한 이병아가 서문경의 여섯째 부인으로 들어올 적에 혼수품과 함께 두 명의 하녀를 데리고 오니 바로 迎春과 綉春이고, 남자 몸종 天福兒를 데리고 와 곁에 두고 잡일을 시킨다. 맹옥루가 서문경에게 세 번째 부인으로 들어올 적에 두 명의 하녀와 한 명의 使童을 자기가 데리고 들어온다. 진씨 부인만이 단지 한 명만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녀의 친정 집안이 그저 그만한 평범한 집안임을 보여 주는데, 이것은 서문경의 초창기 경제적인 상황이 그리 여유 있는 것이 富豪의 집안이

16) 3권 246.

17) 6권 27.

아님을 반증해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병아와 맹옥루 두 명의 돈 많은 과부가 많은 재산과 여유 있게 하인들을 데리고 들어옴으로 해서 서문경은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뿐만이 아니라 그녀들이 데리고 들어온 하녀와 사동을 통해서 그녀들이 지니고 있는 재산의 일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녀들이 가져온 돈과 재물을 종자돈으로 해서 서문경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니 그녀들이 서문경의 사랑을 차지함은 물론이고 실제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여유롭게 지낸다. 이와 반대로 가난할 대로 가난한 반금련은 오로지 몸밖에 없어 옷장이나 화장대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녀를 시중들어 줄 하녀나 사동은 더욱 없었다. 때문에 그녀가 서문경의 집에 들어왔을 때에 주인과 하인들의 무시를 당하곤 하였다. 주인인 서문경이 그녀를 제대로 사랑을 하여 주지 않으니 하인들인들 어디 제대로 그녀를 대우를 해 주고, 좋아하겠는가? 그렇지만 이병아와 맹옥루는 그녀들이 지니고 있는 재물이 많았기에 주위 부리는 하인들에게 선심을 잘 쓰니 본래 서문경의 집에 있던 하인들도 그녀들을 잘 따르고, 게다가 그녀들이 데리고 들어온 하녀와 사동들이 그녀들의 富의 象徴이자 보호막으로 시중을 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 2) 人身賣買의 가격

현재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매매되는 사람들의 몸값은 《금병매》 작품 중에서 볼 수 있는 가격이다. 이런 종류 사람들의 몸값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용하던 도중 사고파는 과정 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매매는 사람들이 마치 소와 말을 사고팔듯 능숙하면서도 숙련된 눈으로 오래된 전문가의 경험으로 정확하면서도 추호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작품 중 매매되는 사람은 대개 세 종류에 의해 거래된다.

첫째, 나이에 의해 가격이 매겨진다. 십삼 세 이하의 여자 하인은 대개 네댓 냥에 거래된다. 제 9회에; “서문경이 다섯 냥에 한 명의 하녀를 사서 이름을 小玉이라 하고, 월랑을 시중들도록 하였다.(西門慶用五兩銀子買了一個丫頭, 名

喚小玉, 服侍月娘…)”. 또한 반금련을 위해 다섯 냥에 秋菊을 사서는 반금련의 부엌일에 쓰도록 한다. 또 24회에서 풍 노파가 말하기를: “북쪽 가에 한 명의 하녀가 있는데 나이가 열세 살인데 다섯 냥이면 살 수 있다.(一個北邊人家裏使女, 十三歲, 只要五兩銀子)….” 제 27회에서 서문경이 네 냥의 은자를 써서 왕 룩아가 데리고 쓸 하녀 錦兒를 사는데 나이는 십삼 세이다. 제 95회에서 춘매가 이르기를: “장 노파가 두 명의 시골 계집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한 명은 열한 살이고, 또 하나는 열두 살이에요. 한 명은 生金이라 하고, 또 하나는 活寶라 하는데 둘 다 생김이 별로여서 두 명에 다섯 냥에 샀어요.(張媽子領了兩個鄉里丫頭子來, 一個十一歲, 那一個十二歲了. 一個叫生金, 一個叫活寶, 兩個且是不善, 都要五兩銀子)” 춘매의 눈에 생김새가 별로인 애들은 다섯 냥이면 충분하다고 보여진 것이다. 또 95회에서 설수가 수비부로 시집가는 춘매를 위해 네 냥에 하녀를 사고, 96회에서도 설수가 십삼 세의 계집아이를 데리고 오자 사고파는 데 능숙한 춘매는 세 냥 오 전에 사서는 이름을 金錢兒라고 고쳐 부른다. 이처럼 나이도 어리고 가격도 싼 사람들의 매매는 작품 중에 등장하는 빈도가 매우 많다. 그것은 그 당시의 피폐된 농촌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제공하는 供給基地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제공되는 물건은 많으니 당연히 가격은 싸지는 바로 “物豐價廉”의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물건이 적고 귀해야 물건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지만 가면 갈수록 생활이 어려워지는 농민들은 그들의 딸자식들을 소나 돼지, 양을 팔듯이 팔아 치우니 자연히 인신매매의 시장이 크게 繁榮하게 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금은보화를 사용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마치 생활필수품을 구매하듯 구매하는 것이다.

십삼 세 이하의 어린 계집애들은 아직까지 발육 상태도 완전치가 못하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값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렇지만 나이가 십오 세 이상이 되면 나이도 어느 정도 들고 또한 체력도 웬만하고 일도 할 줄 알게 된다. 때문에 제 30회에서 이교아가 십오 세의 하녀를 사는데 칠 냥 오 전을 주고, 또 십칠 세의 하녀를 사는데는 열 냥의 은자를 쓴다.

둘째로, 인물이나 능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하녀의 인물이 빼어나면

때로는 주인의 공개되지 않은 성적 노리갯감이 되지만, 인물이 그저 그렇거나 추하면 부엌에서 일을 하는 등 잡일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 가격도 자연히 차별이 있게 마련이다. 제 9회에서 춘매를 묘사하기를: “춘매는 생김새도 빼어나고 성격도 총명 지혜롭고, 사리 판단이 빨라서 제때 처신도 잘하여서 서문경이 그녀를 매우 총애하였다: 추국은 사람이 우둔해서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해 부인네들이 때리는 것은 바로 그녀였다.(春梅長得白淨豐滿, 性聰慧, 喜譁浪, 善應對, 西門慶心是寵他: 秋菊爲人濁蟲, 不任事體, 婦人打的是他...)” 이 때문에 춘매를 사서 들여 올 때는 열여섯 냥에 사고, 추국은 단지 다섯 냥에 사서 들어온다. 후에 오월랑에 의해 팔려 나갈 때도 이미 십오 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추국은 다섯 냥에 팔린다. 제 48회에서 왕륙아가 열여섯 냥의 은자에 하녀 春香을 사는데 “조만간에 한도국에 의해 收用(주인이 하녀를 데리고 노는 것)될 거야.”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하녀를 사 온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 주는 것이고, 또한 춘향의 생김새도 꽤 뛰어났음을 보여 준다. 이 “열여섯 냥의 은자”는 작품 중에서 사는 하인의 몸값 중 거의 최고의 가격인 것이다.

셋째, 직접 사서 첩으로 삼는 경우 몸값이 비싸다. 서문경이 翟謙에게 잘 보이려고 한애저를 사서 그의 첩으로 사서 보낼 때 육십 냥의 은자를 들고, 또 옷과 몸치장 등의 경비로 도합 백 냥이 넘는 은자를 쓴다. 춘매 또한 수부비가 그녀를 사서 첩으로 삼을 때도 오십 냥의 은자를 쓰고, 장이관이 이교아를 사서 둘째 부인으로 삼을 때도 삼백 냥의 은자를 쓴다. 이때 이교아의 去來價는 작품 중에서 사람들을 사고파는 인신매매의 가격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다. 무송이 반금련을 사서 형의 복수를 하려고 할 때, 이런 무송의 속셈을 모르는 왕 노파는 무송이 반금련을 사서 부인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알고 백오 냥의 은자를 요구한다; 진경제는 백 냥의 은자를 써 기녀 풍금보를 사서 첩으로 사고; 반수객이 설수의 수중에 있던 손설아를 사서 부인으로 삼으려 할 적에도 이십오 냥이라는 비교적 높은 가격에 거래를 한다. 하녀를 사고팔 적에는 매매를 하는 쌍방이 일일이 실익을 따지고 매우 인색하지만, 첩이나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할 때에는 사려는 그 가격이 매우 높아지는데 이는 사려는 사람의 대범

함과 동시에 허영심도 관련이 있다 하겠다. 작품 전체를 통해 보면, 사고파는 가격 중 세 냥 오 전에서 다섯 냥까지의 가격이 삼십여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다섯 냥에서 열 냥으로 이십오 명 정도, 이십오 냥에서 삼백 냥이 다섯 명이 있다. 낮은 가격의 매매가 매우 많고, 그 횟수도 빈번한데 이는 작자가 이러한 인신매매를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 주려는 의도가 있다 하겠다. 이것은 인신매매되어지는 사람들의 몸값과 돈 있는 사람들의 기타 비용과 비교를 해 본다면 작자의 이 같은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제 24회에서 서문경이 칠십 냥의 은자를 써서 옥으로 만든 허리띠를 사니 응백작은 매우 싸게 샀다고 극구 칭찬을 한다. 사실 이 허리띠는 십여 명의 하녀를 살 수 있는 가격인 것이다. 또 38회에서 서문경이 말 한 마리를 칠팔십 냥을 주고 사는데 이는 십삼 세 전후의 하녀 열다섯 명 정도를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병아가 죽었을 때에 서문경이 그녀를 위해 삼백오십 냥을 주고 棺을 준비하는데 이는 칠팔 명의 하녀를 살 수 있는 액수이다. 제 12회에서 서문경이 기녀인 이계저와 놀 때에 한 차례에 오십 냥의 은자를 쓰고 또한 다섯 벌의 옷까지 사 준다. 또한 서문경이 黃太尉·蔡壯元·侯 巡撫 등을 위해 큰 술좌석을 준비하는데 한 차례에 천 냥이 넘는 은자를 쓴다. 이에: “동평부가 떠들썩하고, 청하현을 돋보이게 하고 산동성 일대에도 그 소문이 퍼져 나갔다.(驚動了東平府, 坌起了清河縣, 連山東一省也嚮出名去了...)” 또한 서문경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채경에게 잘 보이기 위해 비단·金銀·玉器 등 온갖 예물을 바치는 데 이백여 냥의 은자를 쓴다. 또 永福寺의 증수 건축을 위해 오백 냥의 은자를 내놓는데 이는 백여 명의 몸값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 말의 사회에 있어서 貧富간의 격차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 증거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금병매》는 돈 있는 부호들은 끝없는 낭비와 황음 방탕한 생활에 빠진 반면, 가난한 자들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지내고 그것도 부족해 자식들을 팔아야만 겨우 연명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당시의 현실을 생동감 있게 그려 낸 참혹한 한 폭의 事實畫이라고 하겠다.

## 3) 人身賣買된 사람들의 처지

매매된 자들은 대개의 경우 人格上으로 獨立性을 상실한다. 서문경 집안의 경우를 본다면 사서 오거나, 다른 사람이 보내온 경우, 혹은 시집을 때 데리고 노비들의 경우 모두다 改名을 하는데 이는 명분상으로 모두 독립성을 잃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서문경의 부친인 서문달도 甘州에서 甘興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來興으로 개명을 하여 준다. 서문경이 “두 명을 사 왔는데, 한 명은 래안이라 하고, 한 명은 기동이라고 한다(買了兩個小廝, 一個來安兒, 一個棋童兒...)”라고 개명을 하는데, 그들의 본명조차 거론치를 않는다. 이달천이 한명의 歌童을 보내니 서문경은 바로 그를 “서동(書童)”이라고 부르니, 이 밖에 琴童과 畫童도 있다. 봉건적인 사회에서 본다면 오직 친부모만인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 줄 수 있었으나 주인이 이름을 취해 주는 상황에서는 자연 명분도 친부모가 지어 주는 것보다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으나 하인이나 하인의 부인, 노비,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모두 서문경을 “아버지(爹)”라고 불렀을 뿐만이 아니라, 오월랑을 위시한 여섯 명의 첩들도 모두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천하의 일반적인 주인들은 자신이 소유한 노비에 대해 거의가 “改名”을 하였다. 이처럼 개명을 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 있어 일상적인 것으로 개명을 당하는 사람들도 거의 이의를 달지 않고 받아들였다. 물론 그들이 왜 개명을 하냐고 따질 입장이지는 하였지만... 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宋惠蓮이 불만을 품고 반기를 든다. 그녀의 본명은 金蓮이었지만 서문경의 집으로 들어오면서 반금련과 同名이라 하여 혜련으로 개명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개명을 함으로써 팔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나, 명분상으로 전적으로 주인에게 예속되게 된다. 주인의 희로애락이 바로 그들의 희로애락이 되고, 그들의 희망이나, 그들의 지위도 모두 주인을 따르게 된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노비와 노비, 노비와 주인, 주인과 주인 간의 보이지 않는 투쟁을 형성하게 된다. 암투가 격렬해지면 그것은 직간접으로 노비들의 운명에 관련이 있게 된다. 투쟁의 결과로 맞게 되는 그들의 처지는 대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 寵愛를 얻는 경우이다. 춘매가 주수비에게 팔려 가 첩이 된 다음, 그녀가 인물이 빼어나고, 재치도 있어 주수비가 그녀를 다른 처첩들 중에서 가장 애지중지 총애를 한다. 후에 다시 그녀가 아이를 낳자 그녀를 정정당한 주수비의 정부인으로 삼고 그녀의 말을 다 들어주니 하인들도 지극히 그녀를 떠받는다. 또한 서문경의 첩이었던 이교아도 서문경이 죽은 후에 장이관에게 팔려 가 첩 노릇을 하나, 그의 총애를 업고 가사와 경제적인 일을 다 관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산다.

둘째로는 질책당하거나 매질을 당하는 경우이다. 팔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주인의 꾸짖음을 듣고 매질을 당한다. 《금병매》에 등장하는 대개의 경우이다. 平安과 畫童은 서문경이 書童과 추악한 관계를 맺은 것을 알게 되나, 서동이 서문경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니 平安과 化童은 서문경한테 20여 차례의 매질을 당한다. 夏花이라는 계집종도 금비녀를 몰래 가지고 있던 일이 발각되어 서문경에게 수차례 얻어맞는다. 그리고도 화를 풀지 못한 서문경은 또다시: “내일 바로 매파를 불러 이 계집애를 팔아 버리도록 하여라. 남겨 두어 어디에 쓰겠는가?(明日叫媒人及時與我領出去賣了這奴才, 還留着他做什麼?...)”라고 분부를 한다(제 27회). 반금련이 이병아와 오기 싸움을 벌일 때 고의로 秋菊을 때리고, 또 “돌을 머리에 이고 있게 하거라.(拿塊石頭與他頂着...)”라고 말을 한다. 후에 반금련과 진경제의 私通을 고발하려고 할 때에도, 반금련은 바로: “춘매를 시켜 그녀의 따귀를 십여 차례 때리게 하였다.(教春梅每邊臉上打他十個嘴巴...)” 후에 춘매 또한 여덟 냥의 은자를 써서 손설아를 사서는 모욕성의 욕을 하고, 옷을 벗기고 수십 차례의 매질을 한다.

셋째로, 핍박을 받아 자살을 하거나, 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경우이다. 손설아는 명목상으로는 서문경의 네 번째 부인으로 부업일을 관장한다고 하였으나, 실제상으로 하는 일은 노비의 일이었다. 집 안의 음식은 모두 그녀가 책임을 지고 만들어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한 모욕을 받고 결국에는 來旺과 도망을 하였다가 붙잡혀서 팔리는 경우에 이른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녀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손안에 있게 되고, 춘매가 복수를 하기 위해

그녀를 사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하니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결국 자살을 하게 된다. 무송은 자기 형인 무대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반금련을 사서 죽여 없앤다. 서문경의 생전에는 그토록 의기양양하던 반금련이었지만 서문경의 死後에는 자신의 존립이나 安危조차 어찌지를 못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 4) 人身賣買된 사람들의 자기 운명에 대한 태도

매매되는 사람들의 자신의 운명에 대해 일반적으로 순응하는 태도이다. 그들은 팔렸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스스로 主宰할 수 없다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봉건사회의 강권하에서 그들의 머리를 숙이고, 또 무릎을 굽히는 것이 그들이 처한 잔혹한 현실에 잘 적응하는 방법이라고 여겼다. 그렇게 하는 길만이 그들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에서도 차이점이 있다.

첫째로, 주인에게 잘 보여 자신의 지위를 적극 쟁취, 개선하였다. 서문경 신변에서 심부름을 하던 玳安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처음에는 시키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해 서문경의 노여움을 사 밧로 차이고 언어맞곤 하였다. 또 오월랑의 마음에도 들지를 못해 몇 차례 언어맞기도 하였다. 점차로 서문경의 속마음을 잘 읽어 주인의 안색을 보고 미리미리 일을 처리해 서문경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기에 이른다. 서문경 방탕한 생활의 助力者까지 부상을 하기에 이른다. 서문경의 안색만 보고서도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까지 이르니 서문경은 그를 심복 중의 심복으로 여긴다. 그렇게 되니 대안은 서문경의 못된 것까지 배워 私娼가에 가거나 기녀들까지도 欺滿고, 賁四의 처와 놀아나기까지 한다. 그의 눈에는 오로지 서문경 한 사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행동을 하게 되니 결국 오월랑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오월랑이 보기에 제법 능력이 있는 노비가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자, 오월랑 평소의 관대하고 인자한 마음을 거두고 통렬하게 대안을 배척한다. 대안은 이러한 어려운 시간을 지난 후에 힘 있는 쌍방에 잘 보이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서문경

을 중심으로 한 주위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주위 사람들과 관계도 원만해지고, 또 일도 매우 융통성 있게 잘 처리를 하니 처음에는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오월랑조차도: “네놈은 네 아버지(서문경을 지칭) 배 속의 회충(你是你爹的“腹里蛔虫”)”라고 한다. 그렇지만 대안은 오월랑과 서문경이 사이가 안 좋을 때에 월랑에게 화해의 묘책을 제공하여 월랑의 마음을 산다. 이로 인해 서문경이 죽은 후에 월랑은 그를 수양아들로 삼아 “西門安”으로 개명을 하여 서문경의 가업을 잇도록 한다. 그의 이와 같은 신분의 변화는 많은 다른 노비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환상을 제공해 준다.

둘째로, 노비의 운명에 굴종하고, 노비의 운명을 상실할까 두려워한다. 이런 종류의 인물이 작품 중에 가장 많고 또한 작자가 별반 신경을 쓰지 않고 그려 내는 인신매매의 대상들이다. 주인들은 그들을 마음 내키는 대로 배척하고, 때리고, 모욕을 주고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것을 체념하고 당연시하고 받아들인다. 때로는 원만이나 분노의 마음을 품기는 하지만 감히 드러내지를 못하고 살아갈 뿐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夏花로, 화원에서 돈을 주는 것을 숨겼다가 발각되어 심하게 맞고 팔려 간다. 그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팔려 가는 것으로 울며불며 애원을 하며 남아 있기를 간절히 구한다. 결국 이교아가 방법을 생각해 그녀를 남게 하니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물론 작품 중에서 노비의 운명적인 삶에 반항하는 경우가 있으나 서문경의 집안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은 많지 않다. 있다 해도 限界가 있는 반항이며, 결국은 주인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위협을 주는 정도이다. 來旺이 서문경이 그의 처와 내통을 한 것을 알고 술을 마시고는: “내 손에 걸리면 다 끝나는 줄 알아, 흰 칼이 들어갔다, 붉은빛의 칼이 나오게 할 테니...(只休要撞到我手里, 我叫他白刀子進去, 紅刀子出來...)”라고 거침없이 말을 뱉는다. 이 말들은 그가 평소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원한과 그에 따른 분노, 인격적으로 받았던 극단적인 모욕까지 술을 마신김에 폭발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래왕이 말하는 것은 비단 그 자신의 불행과 불만일 뿐만이 아니라, 당시 노비들이 가슴과 뼈 속에 품고 있는 통한이자 心願인 것이다. 작품 중에서 송혜련의 반항이 제일 돌출적인 것

이라 하겠다. 그녀도 처음에는 몸과 웃음으로 서문경과 “干那營生”을 하나 본디 마음이 선량한 그녀는 서문경에 의해 속임을 당한다. 자신의 순진무구함을 깨달은 그녀는 목을 매 자살을 함으로써 서문경에 대한 반항을 표시한다. 그녀의 자살은 서문경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암울하면서도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충분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다.

### 3. 結語

《금병매》 작품 중 대부분의 매매되는 여인은 현금으로 交易이 이루어지고, 남자의 경우는 선물로 주어지거나 혼인을 할 때 팔려 보내진다. 이를 통해 볼 때 여자의 지위가 남자들보다 낮았음을 알 수 있다. 가난한 집안에서 여인은 집안의 재산으로 부모들은 팔아서 연명을 하였다. 작자는 당시의 보편적인 비참한 사회현상을 그려 냄과 동시에 팔리는 여인들에 동정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그렇게 팔린 여인들의蹂躪당하고, 착취당하고 농락되어지는 현실과, 그들의 비참한 운명의 歷程을 그려 내는 작품이라고 하겠다.

작자는 작품 중에 음험한 세계를 그려 냄과 동시에 일반서민들이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힘들게 발버둥 치며 살고 신음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人身賣買를 많이 그려 냄으로써 가슴 아픈 세계를 보여 주고, 동시에 그러한 시대와 사회에 대해 인식을 하게 하여 준다. 《금병매》의 사회적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 < 參考文獻 >

《會評會校本金瓶梅》(上中下), 중화서국, 1998.  
강태권 옮김, 《金瓶梅》(1-10), 솔출판사, 2002.

周鈞韜編, 《金瓶梅資料續編》, 北京大出版社, 1990.  
朱星, 《金瓶梅考證》, 百花文藝出版社, 1980.  
蔡國梁, 《金瓶梅考證與研究》, 陝西人民出版社, 1984.  
胡文彬, 張慶善選編, 《論金瓶梅》, 文仕藝術出版社, 1984.  
侯忠義, 王汝梅編, 《金瓶梅資料彙編》, 北京大出版社, 1985.  
黃霖, 《金瓶梅考論》, 遼寧人民出版社, 1988.  
黃霖, 王國安編譯, 《日本研究金瓶梅論文集》, 齊魯書社, 1989.  
李時人, 《金瓶梅新論》, 學林出版社, 1992.  
孟森, 《明清史講義》, 里仁書局, 1986.  
傅樂成, 《中國通史》, 大中國圖書公司, 1982.  
王孝通, 《中國商業史》, 商務印書館, 1980.  
全漢昇, 《中國經濟史研究》, 新亞研究所出版, 1983.

#### < 中文提要 >

《金瓶梅》雖然敷衍的是《水滸傳》中潘金蓮貨西門慶的故事,却是一本借北宋末年的歷史來描寫明代社會現實生活的書, 再加上作者嚴格的寫實態度,就使本書成了一部明代社會的歷史記錄。《金瓶梅》中所涉及的社會現象很多,比如風俗,戲曲,詩詞,習慣,婚姻,喪禮等包羅萬象。因此它對於明末社會的政治,經濟,思想,文化及風俗人情等各方面都有重要的參考價值。作者對社會現象現實描寫的深刻廣範的程度,遠遠超出了它以前的任何長·中·短篇小說。

《金瓶梅》爲我們提供了一幅認識封建社會的廣闊圖畫。僅僅從書中描寫的人身賣買問題來說,也可以使我們對封建社會的腐敗,反動,蹂躪人生的罪惡產生剛烈的憎恨與嫌惡,因此也就給予我們更好的教育。

關鍵詞: 性、人身賣買、奴婢、運命、經濟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09.12.30	2010.1.30	2010.2.7	2010.2.8	2010.2.28